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日 기준금리 1.00% 인상

- 日 기준금리 1.00%로 25bp 인상, 지난해 1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추가 인상
- 31년래 최고치이나 예고된 인상, 우치다 부총재 “추가 인상 경기에 따라”
- 점진적 인상 경로 유지할 것. 올해 하반기 1회(연말 日 기준금리 1.25%) 예상

일본은행(BOJ), 6월 기준금리 1.00%로 25bp 인상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6월 16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기존 0.75%에서 1.00%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기업 간 가격 전가 빠르게 진행 중” “소비자물가 구조적으로 2% 상회 위험”
“금리 끌어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

BOJ는 성명서를 통해 “근원 물가가 에너지 부담 완화책 효과 등에 의해 2%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원유 가격 상승을 기점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이라며 “이것이 향후 소비자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의 구조적인 상승률이 목표치 2%를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도 후반부터 2027년도에 걸쳐 목표치 2%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 그 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BOJ는 “일본 경제는 중동 정세의 영향에 일부 약한 움직임도 보이지만 완만하게 회복”이라며 “그동안 정부에 의한 에너지 부담 완화책을 비롯한 각종 시책의 효과가 앞으로도 전망될 뿐만 아니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의 대체 조달이 진전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경제 하방 위험은 평소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BOJ는 “구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금융환경이 완화적임을 감안하면 경제와 물가 금융 여건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BOJ는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조치(테이퍼링)를 2027년 4월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BOJ는 월간 국채 매입 예정액을 2027년 3월까지의 원칙적으로 매 분기 2천억 엔 정도씩 감액하고, 2027년 4월 이후엔 월간 매입 규모를 약 2조 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은 경기에 달렸다” 하반기 추가 1회 인상 전망

일본의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이미 금융시장에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료 노출을 마친 바 있어 실제 금리 결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게다가 2024년 7월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할 당시 소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로 일컬어졌던 충격을 한차례 경험한 바 있는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미리 시장과의 소통을 늘려 인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인상보다는 통화당국의 발언 내용에 이목을 집중했다. 또한 우에다 총재가 신변 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 우치다 부총재가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점도 시장이 주목하는 특이 사항이었다.

우치다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우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 목표를 벗어날 위험이 크다”며 “경기 둔화 위험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치다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은 경기 여건에 따라 달려있다”며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는 속도나 폭으로 금리 인상 일정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환율을 직접적으로 목표를 삼지는 않지만, 환율 변동이 경제 및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는 우치다 총재의 발언이 사실상 성명서 상에 제시된 인상 논거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인상 경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구체적인 추가 인상 폭이나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 1회 정도로 예상한다(2026년 日 기준금리 1.25% 전망).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담 크지 않아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은 단순히 금리 변화보다는 대외적인 영향으로 더욱 관심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이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외환시장 경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당사는 이번 인상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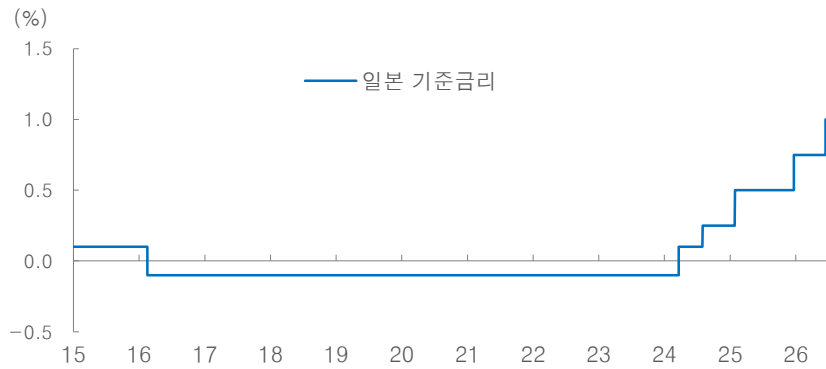
기조적인 금리 인상이나 추후 시기나 강도가 확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달러엔 환율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질 여지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역시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높아진 JGB 금리 부담 남아 vs. BOJ 테이퍼링 중단은 금리 안정화 조치

금리 측면에서는 일본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레벨업을 나타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더구나 일본 금리가 글로벌 금리 동향에서 일종의 하단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국가들의 금리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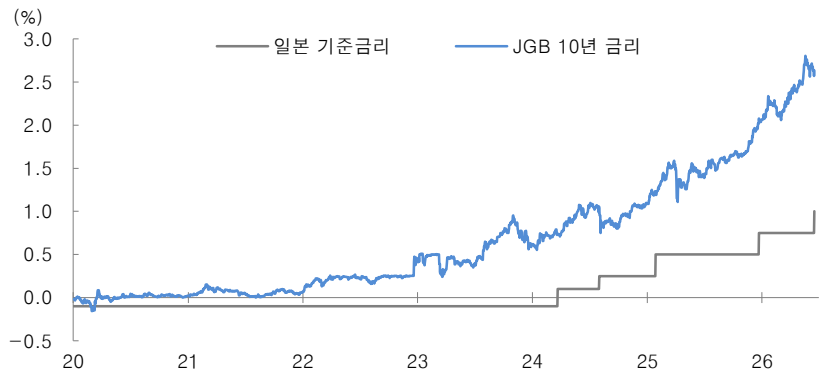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의식해 BOJ가 테이퍼링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당분간 현 수준에서 금리의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그림 1. 일본 기준금리: 6월 기준금리 1.00%로 25b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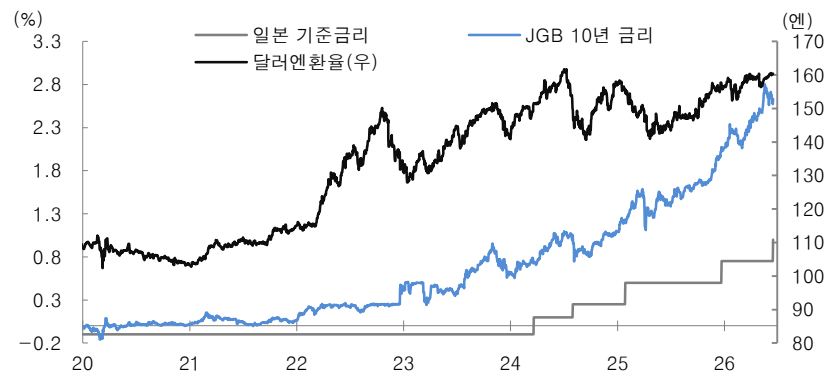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일본 기준금리와 JGB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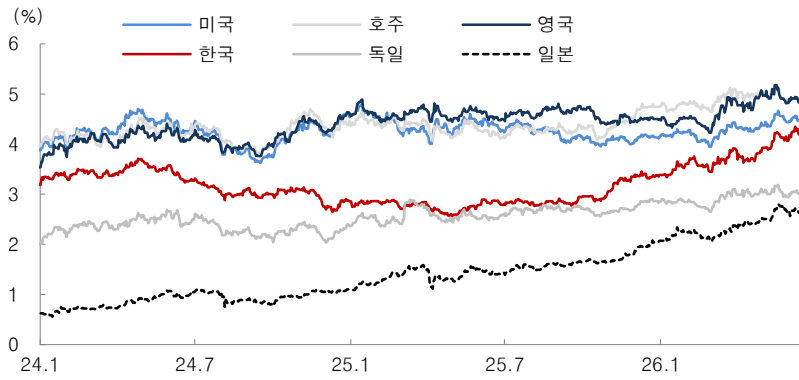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일본 기준금리와 JGB 10년 금리, 달러엔환율



자료: 일본은행,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주요국 국채 10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